

제 목	경력직 신입, 격리해제를 꿈꾸며		
소속 대학	한림대학교	소속 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학 번	2021	이 름	장**
이메일		연락처	

따사로운 햇살이 창을 통해 부서져 들어오는 오후의 일송 창의 비전관(前 일송 기념 도서관). 오늘도 수많은 청춘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책과 노트북을 펼친다. 캠퍼스 안에는 막 점심 식사를 마치고 대면 수업을 위해 걸어가는 학우들이 눈에 보인다. 수업에 늦은 학우는 급하게 공유 키보드를 결제하고 도로를 달린다. 캠퍼스 라이프 센터(CLC) 주변 벤치에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선배님들이 계신다. 누구네 룸메이트는 기숙사에서 ZOOM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했던가. 홈트를 즐기는 누나들과 대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형들. 한껏 패션을 뽐내며 공강을 즐기러 가는 4인 이하의 무리들까지. COVID-19(이하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상륙한 지 어언 2년 차, 한림대학교의 여느 주중 날 풍경이다. 좋은 날씨에 거닐며 공상하고, 도서관에서 글을 쓰는 사람. 나는 한림대학교의 신입생이다.

본격적인 글에 앞서, 한 가지를 선언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라는 단어를 최대한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그’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알고 있고, 개인적인 방역에 힘쓰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려고 항상 노력한다. 하루에 몇 통씩 오던 재난문자는 이제 하루에 한 번꼴로 줄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에 염증을 느낀다. 이제는 코로나에 대해 그만 듣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일 것이다. 이는 필자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언급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우리네 삶과 희망적인 내용을 최대한 다루어보려고 한다.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 돌릴 틈을 이 글에서 찾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고생하는 우리 청춘들부터 우리의 부모님들, 스승님들,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

평범하지만 조금은 독특한, 스물하나의, 신체 2급의 건장한 청춘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보려 한다. 필자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1년 간의 재수를 거쳐 한림대학교에 왔다. 사실 고교 시절의 교과 성적은 좋지 못했다. 이제 와서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자존감이 바닥을 기었고 안 좋은 생각도 들었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연구 활동이었다. 과학고등학교는 R&E, 창의 개인연구, 동아리 연구 등 정말 연구 활동이 많았다. 필수적인 연구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팀을 꾸리고 신청하여 기획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연구가 왜 좋았냐고 물으신다면, 연구하는 순간이 내가 살아 숨 쉰다고 느끼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심장이 뛰는 대로 내 길을 찾아가라 한다면, 나는 단언컨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고교 시절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대학생으로 넘어오면서 변화한 나의 모습을 현재의

시국과 대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사실, 대면 수업조차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한림대학교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방역 지침에 따라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서울 및 수도권에 대부분의 학교들을 비대면 수업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실습 과목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림대학교는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이 대부분 많고, 실습이나 학과 내규에 따라 전공 수업이 원칙인 경우도 있어서, 학생들이 교육의 효과를 누리기에 훨씬 더 우수한 환경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이 특정한 활동을 기획하고 꾸려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창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대내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대학생과 청년층의 발목이 묶인 것은 치명적이다. 사실 이는 비단,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보자.

확진자가 급증하던 2020년, 2, 3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가장 혼돈을 겪었던 체제는 자영업자들도 있었지만 다른 아닌 '교육 현장'이었다. 이는 재수생으로서 지난 한 해를 보냈던 나의 경험으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재수 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 점은 학생들을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되는 데에 상당한 잡음이 동반되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시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입된 칸막이를 생각해보자. 교육부에서 수능을 당초 일정보다 2주나 연기했음에도 수험생들의 안전과 방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강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수험생 간 비말 분포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책상의 세 면을 막는 아크릴 칸막이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현역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부재했고, 반대 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교육부는 이를 밀어붙였다. 본인이 있던 재수종합학원(이하 재종반) 역시 교육부와 지자체 정책에 의해 급하게 칸막이를 개인 자습실에 도입했고, 급변하는 규정으로 인해 수험생들만 피해를 보았다. 수능 당일에는 시험 중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비말 분포를 막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결과적으로, 수능 시험 당일,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었으나 책상 크기가 학교마다 다른데 칸막이의 크기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비좁은 환경에서 시험을 응시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모교에서는 급히 비대면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이조차도 쉽지 않았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모교에서는 한 명의 의심 환자라도 발생할 경우, 학교 전체가 비상에 걸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철저한 방역 체제가 필요했고,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다양한 실험과 연구활동, 비교과 활동이 병행되는 커리큘럼에도 큰 지장이 생겼다. 일각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뿐 아니라 입시판에 놓여있는 고교생들이라면 누구나 입시에서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게다가,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의 경우 입시와 관련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대책을 초기부터 마련해놓지 않은 대학이나 교육관계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도 하였다.¹⁾

고교생들이 겪었던 입시의 고충을 지나, 대학생이 된 지금도 교육 현장이 겪고 있는 시름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교육부가 작년 8월 4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 자료에 의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한 수시전형, 즉 대학별평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 여건에 따라 대학 자체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유는 대학마다 평가유형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²⁾이라고 밝혔는데, 단순히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에만 집중하여 방역적인 면만 강조할 뿐, 실질적으로 변화한 입시 체계에서 학생들이 방역 체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보여주기 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방역에 대한 중요성과 미준수 시 위험성은 이미 보건 당국에 의해 범 국민적으로 충분히 홍보되고 검토된 사항임에도, 교육부가 보여준 행적은 단순히 시설적 측면, 수험자 간 시간 조절 등 물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역 수칙만 다시 되새기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입시를 지나 대학에 들어온 새내기들은 환영받았을까? 대학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을 환영했지만, 실질적인 제도와 시스템은 그들을 반길 여유가 없었다. 2020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20학번들은 에브리 타임이나 여타 커뮤니티 등에서 소위 ‘미개봉 중고’라는 밈(meme)으로 소모되고는 했다.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대학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영부영 시간은 흐르고, 21학번들이 입학할 때가 다가오자 이러한 밈이 탄생한 바 있다. 오히려 20학번들도 커뮤니티 내에서 스스로를 미개봉 중고로 칭하면서 곧 들어올 새내기들이 부럽다는 등의 씩씩한 글도 많이 올라오고는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에 들어서 비대면 강의 체제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가고는 있다. 기존에 ZOOM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강의는 학생과 교수진 모두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음향이나 화질 문제가 잦았고, 통신 문제도 해결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20년 ‘대학교육’이 8월에 발간한 ‘코로나19 시대의 대학교육’이라는 잡지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에 재임 중인 류수노 총장과의 인터뷰를 실은 적이 있었다. ‘Post 코로나 시대 대학 온라인 교육의 방향’을 큰 주제로 두고 류 총장과의 담화가 이어졌는데, 방송대가 작년 1학기(summer semester)에 전국 국립대학과 대구, 경북지역 소재 대학 학생 10,872명에게 2만여 강좌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유학생과 수강을 희망하는 외부 학생들이 무료로 방송대학 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에 의의가 있었다. 사실, 초기에 온라인 교육을 주로 진행하던 방송대나 사이버 대학교들이 물심양면으로 강좌 서비스와 플랫폼 구축의 파일럿 모델을 제시 해주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많은 대학교가 비대면 강좌 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행스럽게도, 방송대가 선두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택트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고, 국립대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견의 일치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사실, 새내기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각종 동아리나 대외 활동의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방역 단계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칙이다. 소위 칭하는 ‘동아리방’을 비롯하여 학내 모든 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적용되고 있고, 이는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중앙 동아리의 경우, 평균적인 인원이 수십 명을 웃도는데, 이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명분도 찾기가 어렵고, 정부 지침에 의해 자연스럽게 활동할 기회가 막히게 된 셈이다. 본인도 현재 학과 동아리는 2개, 중앙 동아리는 1개에 소속되어 있는데, 모두 활동 자체를 시도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외 활동 역시, 수도권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울권이나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 역시, 지역 간 이동이 잦아지기 때문에 권장되는 사항이 아니고,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외 활동에 대한 경쟁률이 예년보다도 더욱 치열해지면서 꿈을 펼칠 대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실질적으로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서울권 확진자수와 전국적인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600명대를 선회하고 있는 실정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³⁾ 필자는 현재 SK SUNNY라는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사회변화 아이디어 공모전에 서울지역 팀으로 참여 중에 있다. 약 2주 전,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림대학교 기숙사에서 관악구로 이동한 적이 있는데, 방역 수칙을 실내에서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지하철이나 공공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밀집된 인구를 보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꾸리고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선 디지털 기술 기반과 학생 중심의 교육 변화를 가장 먼저 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기존의 대면 강의실 시스템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질적으로도 우수한 교육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의 공통분모라고 생각된다. 숙명여자대학교 김형률 교수는 인터넷 상에서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공개교육자료)을 공유하며 동시에 교육 기술 도구를 익힐 수 있는 학생들 간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세계 명문대학들도 시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MOOC 수료를 지원하며 다양한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대학은 디지털 기반의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비쳤다.⁴⁾ 흥미롭게도, 이 기사를 작성한 주체 역시 인공지능이라는 점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교육과 연계시키려는 노력과 각종 시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림대학교의 경우, AI를 이용한 수업 시스템은 아직 정착 단계는 아니지만, 스마트리드를 통해 학생들이 이전보다는 비대면 수업 체제에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더불어, 새내기들에게는 예비 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익숙함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술 외적으로

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시스템의 준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현재 시국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이전의 대면 수업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하다. 그러나,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추기 위한 시도를 현재의 사회를 바탕으로 시작한다면 이후의 대학 교육의 질은 훨씬 더 향상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지금까지는 고교생, 대학생들이 경험했던 현재 교육 현장의 문제점과 실태, 그리고 해결을 위한 학교 차원의 거시적인 방안을 이야기했다. 사실,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언급 자체가 클리셰가 되어가고 있는 최근, 조금 더 실용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교육부의 정책에 분개했던 이유는 학생의 눈높이에 알맞은 대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교육 현장에서 뛰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애써 위로해보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 실제로 현 교육부 장관에 재임 중인 유은혜 장관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고, 오히려 노동 운동을 통해 문재인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국회의원으로 정치계에 입문하였다.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의식이 아니라, 단순히 교육 현장에서 있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교육 정책을 논하고, 추진한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싶어서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육 정책의 개선은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이 주요 활동 계층이 되어 나서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다. 우리 역사를 봐올 때, 항상 사회 운동의 중심에는 피끓는 청년인 대학생들이 있었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이 오늘날의 사회를 이끌어 냈듯이,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된다.

필자가 서두에 과학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이야기를 한 것은, 과학고등학교가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이어지는 경로와는 다른 점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내가 열변을 토하면서 비판했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막혔고,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이 이전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 둘째는 현행 제도나 법안이 이 시국을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와닿지 않고,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것. 사실 첫 번째 문제의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하다. 대학생들, 또는 고교생들이 스스로 깨어있는 학생이 되겠다고 인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금 웃기게 표현하면, 모두가 심비우스 에세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전후 사정을 확실히 파악하고, 다방면에서 해결책을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에게서는 그러한 계몽적 의식이나 적극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소속을 밝힐 수는 없으나 나의 지인들 중에는 비대면 수업 체제를 오히려 반기며 집에서 잉여로운 생활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 과연 그들이 지금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현재 시국이 종료를 알리는 시점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이에 대한 방

안은 두루뭉술한 것도 사실이다.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 즉 고소득층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모두의 경제 사정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리자는 정책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아직까지 물음표로 남아 있다. 이처럼 단순히 이 상황에 관심을 갖자고 말하는 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그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대학생으로서, 한 사람의 지성인으로서, 이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강제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처사임은 확실하다. 단순히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성인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대학의 목표이자, 대학생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사실, 본인이 어려운 시국임에도 대외 활동을 통해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의식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추다 보면 결국에는 그 집단의 지성이 계몽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년들이 건강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되리라는 막연한 희망에서 시작된 것이다. 과학고등학교의 예시를 들면, 본인은 3년 동안의 고교 생활 중, 수업이 교사가 단방향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자연스럽게 서로 질의응답과 때로는 열띤 토론으로 변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수업이라고 배워왔다. 그래서 사실, 재수생으로서 학원을 다닐 때나, 대학교에 왔을 때 많은 염증을 느꼈다. 단방향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오히려 새내기에게는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고, 고학년들에 비해 알고 있는 지식의 절대적인 양도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연한 것조차 왜 당연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태도는 모든 전공을 통틀어서 대학생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이 시국을 살아가고, 앞으로 이 시국이 해결되기까지의 해결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다. 당장 대학의 수업 방식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에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시각을 다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로서 제시하겠다.

두 번째로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특히 더 전하고 싶은 당부일지도 모르겠다. 연구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 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연구와 무슨 상관이 있을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본인은 과학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연구에 미쳐 살았었고, 현재도 의과대학 생리학고실 실험실에 학부 연구생으로 선발되어 연구 참여를 앞두고 있다. 자유 시간에는 관심 분야의 논문을 읽고 관련 내용을 서칭하는 것이 취미일 정도로, 보통의 새내기와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같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제시한 해결책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헤이해지는 20대들의 생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현생을 바쁘게 사는 것이 오히려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단순히, 할 일에 치여서 사는 바쁨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서 바쁜 삶을 사는 것이 조금 더 활동적인 삶을 사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활동적으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대면이라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할 수 없었다.’라는 변명은 할 수

없게 된다. 언택트 기반의 활동이 오프라인에 비해 시너지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의 연구생에 관심을 갖고 실험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알겠는가? 혹시, 이 시국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개발하게 될지. 원대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바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학 생활은 풍성해질 것이고, 소위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 대안을 말하면서 끝맺음을 함께 하려 한다. 필자는 누구나 부러워할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재수라는 쓴 맛을 보았고, 어렵게 대학에 왔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게 될 Hallymer들이 한림대학교의 일원이 된 것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 우리 각자가 과거에 어땠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교육 현장에 있지 않던 사람들이 교육부의 직책을 참여하고 있는 것 역시 그들도 예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노동 운동을 하던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본인은 예상이나 했을까? 이는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피드백을 주지 못하는 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의 책임도 크다. 항상 혁신을 외치지만, 혁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혁신은 등록금이나 기숙사비 등의 증감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그만큼 우리는 교육 체계에 둔감하고, 이는 입시판을 떠나면서부터는 더욱 빠르게 둔감해진다. 각자가 속한 대학교의 현실, 대학교의 교육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모두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학교 행정에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 그 기반에는 자신이 이 학교의 학생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더 개선시키기 위한 굳은 의지가 필수적이다. 이제 어느덧 봄을 지나 여름의 싱그러운 공기로 나아가는 한림대학교의 모든 청춘들이, 현재의 무기력한 생활과 부조리하다고 느껴지는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목소리를 내고, 바쁘면서도 의미 있는 학부 생활을 계획해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비록 이제 갓 새내기가 된, 그러나 이미 대학과 비슷한 생활을 겪어보고 재수 생활까지 해본 ‘경력직 신입’은 오늘도 현 상황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이 ‘격리해제’ 되는 그 날, 이 상황이 종식되는 날을 꿈꾸며 짊어지고도 부족한 습작을 마친다.

1)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43473, 박우경, 대전일보, 2020.10.15

2)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 대입정책과 및 전문대학지원과, 교육부, 2020.08.04

3)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5/23/YHOXDD2BKBC65FM24T7UUGABH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권오은, 조선비즈, 2021.05.23

4)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7711>, 인공지능신문, 2020.09.16